창사 56주년 테마 **포지티브 사회로 가자** 각계 제언

체념과 불신, 저항과 피해의식이 지배하는 사회 즉, 네거티브 에너지가 지배하는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창사 56주년을 맞은 광주일보는 광주·전남이 함께 실천해야 할 지역 의제(議題)로 희망과 신뢰, 통합의식과 자신감이 넘치는 사회인 '포지티브 사회'를 제안한다. 우리가 지향해야할 포지티브 사회의 모습들을 각계 주요인사로부터 들어봤다.

광주·전남의 힘 … 이제는 '긍정 혁명'

한국 독자기술로 개발돼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1개편대가 쪽빛 다도해를 배경으로 진도쌍동이 대교 상공을 날고 있다. 자주국방을 향한 도전정신과 '할 수 있다'는 신념의 산물인 T-50 처럼 광주·전남의 번영된 미래를 위해서는 '포지티브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공〉

가난한 사람도 예술 고객이 되는 사회를

박지택 〈광주 시립미술관장〉

오후 7시가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한다. 7시 정각 미술관 중앙로비에는 어느새 300여 명이 넘는 작가와 시민들이 거문고 연주에 몰입하더니, 곧 이은 성악가의 열창에 큰 박수와 환성으로 화답한다. 여느 공연장의 분위기가 아닌, 매월 첫째 주 수요일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개최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작음 음악회'의 풍경이다.

미술관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시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의 미술관은 전시 외에도 교육, 작품에 대한 연구, 작가지원을 비롯하여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부대행사와 정보,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문화복합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서양에 비해 미술관의 역사가 짧은 우리 실정에 비추어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은 낯선 사람(Stranger)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는 고객(Client)으로서 대접을 받는다. 따라서 고객들에게 외면 받는 미술관 등 문화기관들은 존재가치마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미술관은 좋은 전시를 기획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객들을 위한 문화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문화가치 제공의 장으로, 문화적 소통공간으로의 변화를 끊임없이 시도해야만 하는 것이다.

흔히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들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은 지역의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소통할 때 가능할 것이다. 예술인들은 문화를 창작하고 시민들은 이들이 만들어 낸 산물을 기꺼이 향유한다면 우리의 삶의 질뿐 만 아니라 광주의 문화토양도 그만큼 풍성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주위에는 문화를 향유하는 계층이 극히 한정돼 있는 듯하다. 물론 문화생활이 경제수준과 관련이 있어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는 문화를 운운하는 것이 '사치'라고 여기는 사람도 없지 않다. 하지만 생각만 조금 바꾸면 얼마든지 고단한 일상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 그 비결은 바로 미술, 공연 등 문화에 대한 관심과 향유다. 조금만 눈을 돌려 보면 문화의 향기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이벤트들이 넘쳐난다.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민으로서는 문화마인드는 의무이지 생활이 되어야 한다. 굳이 값비싼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해야 문화생활을 하는 것쯤으로 인식하는 편협된 시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다.

재판은 최후의 수단, 和平의 풍토 기르자

최인규 〈광주지법 판사〉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복잡하게 변모함에 따라,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 또한 법만으로는 명쾌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변질하고 있다.

일례로, 과거의 분중 관련 재판은 개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분중이 명의 신탁한 분중재산인지, 아니면 분중원 개인재산인지가 많이 다투어졌다.

그러나 여성의 분중원 자격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이제는 분중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달라거나 분중회의에서 발언·표결권을 인정해 달라는 여성들의 요구가 늘고 있다.

급기야 2008년부터 성·본 변경제도까지 시행되어, 새 아버지 성을 따라 성·본을 변경한 자식은 친아버지와 새 아버지 중 어느 분중에 속하는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핏줄에 따라 친아버지 측 분중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김씨 분중회의에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분중원이라고 나타나 목소리 높이는 현상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법이 분쟁해결의 주요한 수단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처럼 법이 모든 분쟁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10명의 결참이 1명의 도둑을 막기 어려운 것처럼, 아무리 꼼꼼하게 만든 법이라 하더라도 날로 변하는 사회현상과 분명을 다 포섭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정에서 '법대로 하자'며 목소리를 높이는 재판당사자를 대할 때마다, 판사들은 고민한다. '꼭 법이어야 하는가? 법보다 더 차원 높은 분쟁해결 방법은 없는가?'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보내 희생하게 함으로써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자 했다.

성경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받은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면서, '화평(和平)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한다.

갈등은 분쟁을 낳고 분쟁은 분열로 이어지기 쉽다. 누구나 갈등을 털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꿈꾸지만, 솔선하여 실천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갈등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광화문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나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는 실천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광주, 정치도시를 넘어 문화도시로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광주'라는 도시는 외지인들에게 '정치도시'라는 강렬한 인상을 풍긴다. 5·18민주화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격동기에 광주가 그만큼 뜨겁게 움직이는 도시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프랑스 대혁명의 도시인 파리는 어떠한가. 파리의 이미지는 정치도시가 아닌 세계적인 문화도시이다. 루브르 박물관과 퐁피두센터, 라빌레뜨 등 파리를 상징하는 것들은 문화적인 것들이며 대혁명의 역사는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발양되어 나온다. 파리의 이런 점들이 파리로 몰려드는 요소는 아닐까.

광주 역시 정치도시의 이미지를 아우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문화도시의 배력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타 도시와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흡essential 도시환경 - 삶의 질 - 경제적 풍요'의 선순환 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광주라는 도시를 문화도시로 만드는 작업들은 사실 섬세한 것들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거리의 간판, 벤치, 버스정류장, 전화부스, 보도 블럭 등 거리 시설물을 하나하나에서부터 시민들에 대한 배려와 광주의 정체성이 담긴 참의적 도시 디자인작업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물론 이런 작업이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서 잘 된 사례를 봉어빵처럼 찍어낸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며, 보이지 않는 광주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문화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도시디자인에 그칠 일이 아니다. 광주를 정치도시로 인상지어준 요소 가운데 하나는 광주라는 도시가 지역적 벽이 높고 외부에 배타적이라는 이미지다.

하지만 외부에 대해 배타적인 도시는 결코 문화도시로 성공할 수가 없다. 미국 경제학자 리차드 플로리다는 문화적 힘으로 경쟁력을 갖는 창조도시는 새로운 사상에 개방적이고, 문화적이며, 관용 지수가 높은 도시라고 이야기한다. 그가 예로 들고 있는 '게이들이 많은 도시가 문화적 경쟁력이 높은 도시와 일치한다'는 사실은 문화적 관용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최첨단 문화산업 유치는 세제나 재정적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재능 있고 창조적인 사람들이 있는 도시였을 때 가능하다는 설득력 있는 연구결과에도 주목을 해야 한다.

정치도시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화도시 만들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비전과 열린 마음으로 '광주'라는 문화브랜드를 만들어가자는 점에 공감하고 참여해야한다는 사실이다.

학교를 믿으면 공교육 살아난다

김승호 〈전남도교육청 정학관〉

학교교육은 개인과 사회에 희망을 주는 기초장치다. 교육은 모든 학생들을 실력과 인격을 지닌 능력있는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활동임과 동시에 사회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 공교육은 개인과 사회에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기보다는 오히려 불만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다. 공교육에 대한 불만 때문에 사교육 기회에 유리한 대도시의 좋은 학군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고,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사람들은 어떤 대상에 대한 기대를 높이 가지는 만큼 그에 대한 불만족도 크게 느끼게 된다.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가장 우수한 수준을 기대하면서, 반대로 가장 미흡한 부분을 예로 들어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대다수 학교들은 사회의 어떤 다른 기관보다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대다수 선생님들은 어떤 직장인들보다 더 노력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미흡 사례를 들어 전체적으로 비관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학교교육 활동의 긍정적인 측면이 좀 더 부각되었으면 한다. 우선적으로 교육계 내부에서 철저한 자체 진단과 신뢰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교육을 비판하는 습관도 사라져야 한다. 특히 언론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학교와 교원들에 대한 습관적인 불만 제기는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교육의 위기 현상을 부추기는 위험성을 지니기 때문에 더욱 책임있는 보도 관점을 갖기를 기대해 본다.

새정부 들어 학교교육 자율화 시책이 발표되었다. 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인 만큼 지방교육행정기관에게는 학교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학교로서는 책임있는 자율 운영 능력을 배양하려는 노력이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공교육은 분명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어야 하며, 사회발전의 원동력이어야 한다. 학교와 교원들은 비판을 적극 수용하여 사회적 기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 전체적으로 학교와 교원들은 그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 위에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 신명나게 일 할 수 있게 해야

류동훈 〈광주·전남행복발전소 사무처장〉

요즘 대학 졸업식장에서는 사회로 진출한다는 기쁨보다는 실업의 대열에 합류한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남아있다.

특히 우리 지역은 공무원 시험 준비에 올인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경쟁률이 보통 100대 1이 넘는 걸 볼 때 1명이 취업하고, 99명이 떨어지고 있다.

대학도서관에 가보면 공무원과 별 관련이 없는 학과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비싼 납부금 내고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 준비는 따로 하고 있으니,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다.

직장의 안정성이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느 직장을 가든지 성실하게만 임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세상을 안정적으로 사는 것만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가치이다.

학창시절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자신을'백수'라고 부르는 순간 진짜 백수가 된다. 직장을 구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이미 '프로일꾼'이다.

자신을 사랑하며 눈을 낮추어 우선 조그마한 일부터 먼저 시작하자. 첫 술가락에 배가 부르면, 그 다음 술가락에서는 밥맛이 없어진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공익적인 부가가치를 기업운영의 방법으로 창출하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힘만으로 일자리를 찾아가기에는 너무나 힘에 부치다. 지역출신 대학동창회에서 대대적으로 졸업생들 취업시키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자기학교 출신을 취직시키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지방대 출신 선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이 많이 생겨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를 위해서는 갈등과 대립의 지역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화합과 격려가 넘치는 따뜻한 분화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무엇을 함께 협력해 갈 것인가를 찾아가는 지역 문화를 기업들은 좋아한다. 지역 유통업체를 비롯한 지역 기업들을 먼저 찾고 사랑해 주면 그 정성이 돌고 돌아 곧 나와 우리 가족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인·부자를 미워하지 말자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미국 사람들에게 19세기말~ 20세기 초에 국부의 초석을 다졌고 거부(巨富)가 되었던 록펠러, 밴더빌트, 카네기 등의 기업가에 대해 물어보면 일성(一聲)이 그들은 잔인하다는 것이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나라 살림의 기틀을 다졌던 한국의 기업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여서 부자에 대한 반감은 여느 나라에서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어느 나라나 경제 개발의 초창기에는 자본은 부족하고 인력은 넘쳐난다. 일자리가 부족한 만큼 임금은 낮고, 따라서 근로자들의 생활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곧 기업가들이 근로자들을 착취했기 때문이라는 반감으로 연결되고, 성공한 기업가에게 자원이 집중되는 현상은 이러한 반감을 더욱 키운다.

그러나 불확실한 상업 세계에서 미지의 이윤 기회를 찾아 나서는 기업가는 능동적이며, 창의적이며, 낙관적인 행동인(acting man)이다. 역동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존재가 곧 기업가다. 물론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사람만을 기업가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다. 불확실한 인간 세상에서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기업가이다. 또한 이윤은 성공적으로 불확실성을 떠맡은 데 대한 보상이며, 성공한 기업가에게 자원이 집중되는 현상은 바로 그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탁월한 통찰력으로 예견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부자가 된 것이다. 결국 기업으로 성공한 부자에 대한 이해 부족이 부에 대한 반감의 원천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반감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웰빙 좌파 지식인들이다. 중국의 저우언라이는 평생 와이셔츠 한 벌로 살았다고 한다. 그런 그가 중국 땅에 남긴 것은 가난뿐이었다. 그러나 좌파 지식인으로서 개인적 도덕성은 견지한 셈이다. 반면에 자본주의의 수혜를 흠뻑 누리면서 부자에 대한 공격을 존재의의로 삼는 이 땅의 웰빙 좌파 지식인들은 이도저도 아닌 존재들이다.

우리 기업의 역사는 이제 겨우 반세기에 불과하다. 기업 문화나 부자의 정신문화도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듯이 지금 당장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자. 차분하게 기업가와 기업, 그리고 부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내가 가난한 것은 그들이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 길만이 우리는 물론 후손들의 물질적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번영을 약속할 것이다.

환경친화적 개발 얼마든지 가능

문인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제18대 총선이 끝났다. 당선자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이 정당과 정파를 넘어 경제를 회생시키고 사회통합에 앞장서 국민을 섬기는 정부, 민생을 걱정하는 정치로 거듭나 달라는 주문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광주·전남 유권자들도 지지하는 정당이 야당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여기서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국가와 지역의 상생 발전과 공동 번영의 해법을 찾는 긍정의 에너지를 모아 나가야 할 때이다.

광주는 지난 시절 오랜 소외와 낙후 속에 만년 소비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첨단산업과 문화를 일으키고, 수출 100억불 시대를 달성하는 등 생산도시로 탈바꿈시킨 저력이 있다. 우리 시민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의 힘'이 현재의 광주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최근의 광주천과 영산강 모습을 살펴보자. 그동안 아무도 찾지 않던 하천에 다시 맑은 물이 흐르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초기에는 인공구조물 중심의 또 다른 환경파괴가 아니냐는 우려와 염려가 있었지만 친수공간 조성과 생태 서식처를 마련하고, 산책로 등을 정비한 결과 수질은 개선되었고 환조봉이와 새매, 왜가리 등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인근에 건설되고 있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빛과 물이 하나되는 생명의 도시'를 테마로 미래지향의 자족형 신도시가 건설되어 지역의 대도약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린벨트의 해손이 아니라 환경친화형 개발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 모두가 초기의 우려와 네거티브를 극복한 포지티브의 성공 사례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은 광·자동차·디지털가전산업 등 지역전략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하고, 여기에 필요한 도로와 공단시설 등 지역개발을 확대하고 SOC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야 한다. 이러한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를 환경파괴로 받아들여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 지역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긍정적 사고'를 당부드리고 싶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우리 광주를 가장 살기 좋은 1등도시로 만들겠다는 긍정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포지티브는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긍정의 힘이 우리 광주의 미래를 만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본다.

'법의 지배' 인정해야 선진사회 도약

이병철 〈조선대 법대 교수·변호사〉

3년전 광주에 처음 온 이후 필자는 광주에서 운전을 할 때마다 당혹감을 느낀다.

각종 교차로의 도로바닥에는 흰색 스프레이 흔적이 자주 목격된다.

광주시민들의 다소 거친 운전, 광주의 교통사고율이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통계를 접할 때마다 필자는 안타까움을 갖는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법치주의의 실종이다.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법을 지키는 것이다. 법의 지배 (rule of law)를 믿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법대로'라는 말은 "끝까지 싸워 보자"는 말로 들린다.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에서부터 "그 놈의 헌법"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표현들은 법에 대한 경멸을 담고 있다. 법이 경멸당하고 법(法)의 지배가 아닌 인(人)의 지배 또는 군중의 지배가 횡행하는 한 광주가 선진사회로 도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의 지배를 위해서는 우선 법 자체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 프로크루스테스는 행인을 붙잡아 자신의 침대 크기에 맞추어 신체를 자르거나 늘였다고 한다.

불합리한 법을 강요하는 것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다. 불합리한 신호체계 때문에 무법운전이 유발된다면 신호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법의 지배를 위해서는 법준수에 대한 상호신뢰(trust)가 형성되어야 하고,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사라져야 한다.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광주시민들이 법의 지배를 위한 '사회계약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공무원들은 법치행정, 경영자들은 법치경영, 노동자들은 법치노조, 시민들은 법치질서라는 각자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함 것에 동의하는 사회계약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누구보다도 정(情)이 많은 광주시민들,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도 고도의 법질서와 상호신뢰를 실천했던 광주의 역사. 이 마음과 역사가 있는 한 광주는 법치의 도시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 잘 사는 광주, 살 맛나는 광주도 이루어질 것이다.

허위 고소 남발 등 '떼법문화' 청산을

안형준 〈광주지검 검사〉

요즘 주변에서 '떼 법 문화 청산'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떼 법'이라는 용어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가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행동'으로 이해되고 있다.

불법 폭력집회가 이러한 '떼 법'의 대표적인 행태이지만, 죄가 되지 않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저해해 당한고 고소를 남발하는 것도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떼 법'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로 힘없는 것도 서러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여 법에 하소연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고소가 얼마나 남발되고 있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지 안다면 고소의 남발도 청산되어야 할 '떼 법'에 해당된다는 견해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허위고소가 너무도 많다. 일본과 비교할 때 지난 2000년 기준으로 허위로 고소한 무고 사범이 일본의 1천438배, 인구 비율을 감안하면 4천151배에 이른다.

그런데 허위 고소는 단지 개인적인 분한 마음을 법에 하소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괴의자의 자격으로 수사를 받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무고로 판정되더라도 고소당한 사람에게는 커다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준다.

또한, 수사력 남비로 정작 법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무고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엄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기관의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민사분쟁에서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 수단으로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보자"라는 사회에 만연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버나드 쇼는 "자유는 책임을 뜻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자유를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정말로 자유가 두렵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 뒤따르는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고소도 이와 같다. 고소에 제약이 있으면 안 될 것이지만, "고소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떼 법 문화 청산'의 일환으로 허위 고소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